

나~!

이런 사람이야!

‘꽃’(花)

4월이 되니 겨울과 가장 큰 변화는 ‘꽃’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예상보다 벚꽃이 일찍 피기도 하는 등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가 자신의 색을 찾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꽃으로 주제를 정해봤는데, 꽃의 의미는 보는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인생이겠죠?

arirang



싱그런 봄을 맞아 이태원동 어느 골목에서...
홍기훈 아리랑국제방송 주조정실 사원

EBS



EBS 뒀안길 양재천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박승건 EBS 기술기획부 차장

OBS



줄을 서시오~~~ (산에 핀 꽃과 그 옆을 줄줄이 걸어가는..)
OBS 방송기술인협회



tbs



우리 집의 사랑스런 꽃님들^^
동생 다윤이와 언니 채연이입니다.
항상 친구같은 아빠이고 싶은데.....
아빠가 더 노력할께 공주님들!!!
이정환 tbs 기술국

BBS



내가 생각하는 꽃~ 애교많고 사랑스런 조카.
강원도 여행 중 휴게소에서...
최승룡 BBS 라디오기술부

kt skylife



그 꽃 - 만리장성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그 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네. 인생사가 다 그렇지만 가끔씩은
여유로운 맘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김희동 KT스카이라이프 대리



조팝나무 꽃, 싸리꽃이라고도 하는 야생화입니다.
학가산 송신소를 가다보면 길가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꽃말은 '노련하다'입니다. 방송기술인으로서
최고 전문가가 되는 노련함을 보여 엔지니어의
위상이 높아가는 시대가 오길 바라봅니다.
남용섭 KBS안동방송국

KBS

